

‘진도 간첩단 사건’ 29년만에 누명 벗은 석달윤씨

“고문 수사관들 이젠 용서하고 싶다”

“독재정권서 살기 위해 그랬을 것”

“너무 억울해서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1980년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18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석달윤(78·사진)씨는 29년 만에 간첩의 누명을 벗고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간첩방지 협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을 복역했던 석씨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석씨와 함께 간첩사건에 연루돼 각각 1년 6개월과 2년을 감옥에서 보낸 박공심(70·여)씨와 장재영(81)씨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재판부는 이날 ‘영장 없이 50일

동안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몽둥이 구타,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 혹독한 고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피고인들이 완전히 부인하지 말고 적당히 자백해야 한다는 말을 국선 변호인으로부터 듣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석씨 등은 출소 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해보지도 못한 채 10년 가까이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야 했다. 누명을 벗기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지난 2007년.

과거사위는 ‘중정 수사관들이 석씨 등을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



이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석씨는 “당시 고문을 한 수사관 5명이 끝까지 고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싶다”면서 “독재정권 아래서 자신들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을 것”이라며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다.

석씨는 “‘무죄’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간첩 가족으로 낙인 찍혀 살아온 아내와 4자녀(3남 1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서 “간첩의 자식이라는 누명 때문에 취급도 못하

서 자백받은 조작사건’이라며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지만 완전한 명예회복은 이날 판결로 이뤄진 것

는 등 사회적 냉대를 받아오면서도 열심히 살아온 자녀들이 고마울 뿐”이라고 울먹였다.

석씨의 막내 아들인 석권호(40)씨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간첩으로 끌려간 뒤 ‘빨갱이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온갖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면서 “아버지의 무죄 판결로 그동안 쌓인 모든 원한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하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1980년 중앙정보부가 고문을 통해 조작한 ‘진도 간첩단 사건’은 석씨 등 3명이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남파된 석씨의 고종사촌 형인 박모씨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고 고향인 진도 일대에 바닷가 경비상황 등을 알리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개특보’ 발령

기상청, 4월부터

오는 4월부터 안개특보가 발령된다.

기상청은 “안개특보제를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안개특보 발효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기상청은 호우, 태풍, 폭설, 폭염, 한파 등에 관한 기상특보를 발표하지만 안개와 관련해서는 공항에서 안개로 항공기 운항이 어려울 때에만 ‘저시정 경보’를 발표하고 있다.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보’로 나뉜다.

기상청은 2006년 10월 3일 서해대교에서 짙은 안개에 따른 29중 추돌사고로 사망 11명을 포함해 6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안개특보 제도를 검토해 왔다.

/*연습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7분
해질 17시 51분

달돋이 05시 26분
달질 14시 57분

눈보라 몰아치는 날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

| 지역 | 날씨 | 최저/최고 |
|-----|-------|-------|
| 광주 | 흐리고 눈 | -1/1℃ |
| 목포 | 흐리고 눈 | 0/1℃ |
| 여수 | 구름 조금 | 0/2℃ |
| 완도 | 흐리고 눈 | 1/2℃ |
| 구례 | 흐리고 눈 | -1/0℃ |
| 해남 | 흐리고 눈 | -1/2℃ |
| 장흥 | 흐리고 눈 | -1/2℃ |
| 고흥 | 흐리고 눈 | 0/2℃ |
| 순천 | 흐리고 눈 | -1/0℃ |
| 영광 | 흐리고 눈 | 0/1℃ |
| 진도 | 흐리고 눈 | -1/1℃ |
| 진주 | 흐리고 눈 | -2/1℃ |
| 남원 | 흐리고 눈 | 1/1℃ |
| 속초 | 눈 | - |
| 강릉 | 눈 | - |
| 춘천 | 눈 | - |
| 서울 | 눈 | - |
| 대전 | 눈 | - |
| 청주 | 눈 | - |
| 대구 | 눈 | - |
| 부산 | 눈 | - |
| 울릉도 | 눈 | - |
| 독도 | 눈 | - |
| 제주도 | 눈 | - |

| 비 | 풍향 | 파고 | 밀물 | 썰물 | |
|-----------|------|----------|----|-------|-------|
| 서해 남부 앞바다 | 서~북서 | 2.0~4.0m | 목포 | 12:53 | 05:24 |
| 서부 앞바다 | 서~북서 | 3.0~4.0m | 여수 | 18:29 | 18:29 |
| 남해 서부 앞바다 | 서~북서 | 2.0~4.0m | 여수 | 07:59 | 01:07 |
| 남해 동부 앞바다 | 서~북서 | 2.0~4.0m | 여수 | 19:39 | 14:03 |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24(토) | 25(일) | 26(월) | 27(화) | 28(수) | 29(목)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6/-1 | -6/1 | -6/2 | -6/4 | -3/8 | 0/9 |

“영광 염전 페타이어 오염물질 기준치 이하”

서해환경과학연구소

페타이어가 무더기로 묻혀 있던 영광의 천일염전 저수지 토양에서 토양 오염 물질 7가지가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광군은 페타이어가 묻혀 있던 영광 백수읍의 천일염전 저수지 제방과 바다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 서해환경과학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토양환경정보전법에 규정된 오염 물질 17가지 가운데 구리, 비소, 납, 6가 크롬, 아연, 니켈, 석유계탄화수소 등 7가지가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 오염 물질의 함량(mg/kg)은 토양 오염 허용 기준치의 0.5~10% 수준에 그쳐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광군은 설명했다.

수은과 카드뮴 등 나머지 10가지 오염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영광군은 이번 검사 결과로 타이어를 만들 때 사용되는 합성고무와 기타 첨가제가 바닷물에 녹아 염전 저수지

의 토양이 오염됐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염전 저수지에서 발견된 페타이어 2천여개(15t 트럭 3대 분량)는 염전을 운영하는 K업체가 지난 10일 모두 수거, 광주의 페타이어 처분 업체를 통해 조만간 소각할 예정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전남대 정시 합격자 발표

전남대학교는 22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2009학년도 정시 나군 합격자 1천476명(광주 1천216명, 여수 260명)과 예비합격자 2천552명을 발표했다. 수능성적과 학생부, 면접, (예체능계)실기 점수를 합산해 신입생을 선발한 정시 나군에서는 1천476명 모집에 5천282명이 지원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남대는 오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실시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할아버지·할머니 사랑해요”

2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생촌사회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설탕이 합동세배와 떡국 잔치’ 행사에서 한복차림의 어린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해 사랑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위정량기자 jwi@kwangju.co.kr

광주, 사립학교 교사 10명 특별채용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우수교원 1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전형은 서류심사와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 실연, 면접시험 등을 거쳐 선발한다.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에 접수하고, 시험은 같은 달 13일 광주 화정중학

교에서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18일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채용으로 사립 교원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 사기진작 등이 기대된다”며 “채용된 우수인력은 올해 문을 여는 개교학교 등에 배치, 학교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리산에 물 없어요”

겨울가뭄 심각... 식수 꼭 챙겨야

“지리산에 오를 때는 먹을 물을 꼭 챙기세요.”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지리산과 설악산 등 전국 유명 산의 식수마저 고갈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22일 “겨울철 가뭄이 지속함에 따라 고산 지대에 식수가 거의 고갈됐다”며 “현재 지리산과 설악산, 덕유산은 식수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국적인 가뭄현상과 맞물려 지리산의 지난해 강우량이 전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뜸 떨어져 대부분의 고산지대 대피소의 식수가 고갈됐다”며 “특히 중주를 하는 지리

산 등산객들은 먹을 물을 충분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리산은 대피소 8곳 가운데 1곳(장터목 대피소)은 물이 완전히 끊겼고, 7곳은 물이 부족한 상태다.

대부분 대피소가 샘물을 끌어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겨울 가뭄으로 샘물이 마르거나 일부는 얼어붙어 식수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측은 “식수 준비와 함께 건조한 날씨로 산발이 우려되는 만큼 라이더 등 인화물질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수 화물연대 운송비 인하폭 합의

운송거부 사태 ‘돌파구’

여수 화물연대 간부들과 여수운송협의회가 컨테이너 운송비 인하폭에 합의함으로써 2주째 지속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운송거부 사태가 돌파구를 찾게 됐다.

22일 여수운송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부터 여수 화물연대 간부들과 마라톤 회의를 한 결과, 운송비를

10~11% 인하하기로 했다.

운송사협의회 관계자는 “인하폭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화물연대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조합원이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만간 정상적으로 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신양파크 호텔

“빛고을 설탕이 패키지”

신양파크 호텔에서는 무더기 최대 할인인 설탕이 패키지 패키지를 제공하며 모든 객실 객실은 또한 “빛고을 설탕이 패키지”를 제공, 혜택과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2009년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5일간) 객실 2주째 무료 숙박(최대 2인)과 함께, 설탕이 패키지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객실 종류 | 가격 | 혜택 |
|-------|----------|-------------------------|
| 고급 객실 | ₩199,000 | - 객실 1박 -朝食+이웃나 2인객용 |
| 중급 객실 | ₩139,000 | - 객실 1박 -朝食+이웃나 2인객용 |
| 기본 객실 | ₩79,000 | - 객실 1박 -朝食+이웃나 2인객용 |

예약 및 문의

- 신양파크호텔 : 070-8000
- 호텔 예약실 : 070-47117
- 호텔 고객센터 : 020-510-3000~11